시·도 소식

경기도

인천시,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인천시는 신종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등 국가재난형 1종 법정 전염병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을 대비해 예방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 경제통상국장을 팀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상황발생에 따른 7명의 방역관을 추가로 배치키로 했다. 시는 특히 의심이 되는 가축에 대한 조기신고는 물론 임상 및 병리, 혈청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인천지역 우제류 가축은 686가구에 2만157마리의 한우를 비롯해 돼지 4만9,740마리(127가구), 산양 3,259마리(150가구), 사슴 1,658마리(121가구) 등 1,170가구에서 7만8,85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조류의 경우 닭이 136만9,732마리(1,280가구), 오리 4,652마리(142가구), 개 7만9,721마리(4만2,811가구), 말 62마리(15가구), 꿀벌 9,714군수(70가구)가 사육되고 있다.

시는 이들 가축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혈청검사와 병성감정 검사물량을 종전 보다 10% 확대키로 했다. 시는 특히 가축의 분뇨와 사료, 동물약품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은 물론 이에 대한 관련 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은 치명적이어서 상황발생 이전에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군, 축산업 등록제 시행

평창군에서는 축산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오는 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 이상의 축사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는 농가도 축산업등록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소를 기르는 시설면적이 300㎡를 초과하거나 50㎡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농가만 축산업을 등록하면 됐었다. 하지만 축산물의 사육이력을 확인하고 가축방역과 친환경 축산직불제 등의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규모로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는 농가까지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 하는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해 종축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2008년 12월 24일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르면 50㎡ 이상의 축사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는 농가도 2009년 6월 24일부터는 반드시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우스 등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하려면 반드시 축산업을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절차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천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설립

홍천군은 미생물을 이용해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축사의 악취 제거는 물론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을 육성키 위해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착공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오는 7월말 완공예정으로 약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18㎡ 규모에 배양시설과 연구 · 부대시설 등이 구비된다.

센터에는 미생물 배양기를 비롯 황온진탕배양기, 진공포장기 등 26종의 기자재를 설치하고 고초균, 젖산균, 광합성균 등 10종의 균주를 증식 배양해 농가에 공급한다.

군은 완공되는 대로 100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해 2,5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300톤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완공되면 경종농가는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생육 촉진, 잡초방제 효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고, 축산 농가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아민, 초산 등의 가스를 저감시켜 악취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완공되면 미생물 구입비 절감과 이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사의 악취 감소로 청정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연기군, 축산물 항생제 잔류검사 서비스 실시

연기군 농업기술센터는 항생제 잔류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항생제 잔류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5월 14일 밝혔다.

기존의 항생물질 잔류 검사 방식이 도축장에서 이미 도축된 고기를 샘플로 검사하는데 비해 이번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방법은 출하 전 살아있는 가축의 혈액을 분석함으로써 만일 항생제 잔류가 발견되더라도 휴약기간을 거쳐 출하할 수 있게 되어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항생제 잔류검사 서비스는 페니실린 등 가축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20여 가지 주요 항생물질에 대한 축산물 내 잔류검사가 가능하며 식육뿐만 아니라 우유, 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혈액, 우유, 꿀 등 샘플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가져오면 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가축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생제를 사용한 가축은 사전에 항생물질 잔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확인 후 출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배양시설을 통해 경종 · 축산용 · 생활개선용 등으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을 매주 전작, 과수, 축산농가, 시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초 165㎡ 규모의 배양실 신축과 1회 2,500㎘ 생산이 가능한 대형 배양기 2기 등의 설치작업을 완료했으며 그동안 간이 배양을 통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유용미생물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배양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은 미생물 가운데 가축 등과 공존 · 공생이 가능한 80여 종을

선별한 복합 미생물제로 유해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 작물의 연작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발효사료의 제조 및 분뇨처리 등에 이용되고, 일반 가정에서는 하수구와 음식물쓰레기에 사용돼 악취 발생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의당면 송학리의 양축농가 강구원 씨는 "유용미생제를 축사에 사용해보니 분뇨의 발효가 빠르고, 유해가스의 발생량이 적어져 악취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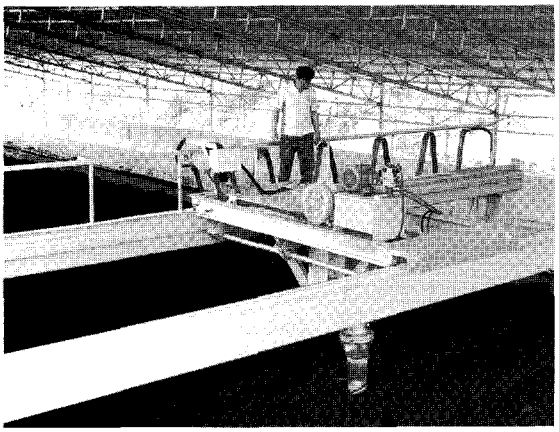
김상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은 "배양시설은 한번 배양을 하면 공급까지 5일이 소요되며, 1기당 2,500㎘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원군, 깔짚 재활용 사업 실시

청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초로 축산퇴비 발효에 의한 깔짚 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재료비를 연간 60% 정도 절감하고, 퇴적분뇨를 휘저어 섞어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를 86%나 줄였다고 지난 5월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의 안정적인 관리와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축사바닥에 깔아주었던 깔짚을 퇴비로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다. 퇴비장으로 이송된 깔짚을 공기주입 스쿠류식 교반 발효기를 활용해 건조시키고, 바닥에 설치된 송풍 부로아시설로 공기를 주입해 건조시킨 뒤 왕겨나 톱밥을 30%쯤 추가해서 축사에 깔짚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축산용 깔짚은 최고 5회까지 재활용할 수 있고, 왕겨, 톱밥 등 깔짚 비용을 연간 6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또 퇴적분뇨 교반처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무교반보다 86%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 방지에 의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축산용 깔짚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곽동구 씨는 "기존에는 축산분뇨을 재활용할 수 없어 처리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애물단지가 재활용처리돼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분뇨를 단순히 퇴비로 활용하지 않고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바꾸어줌으로써 축산농가들의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축산용 깔짚 재활용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축산용 액상생균제 무료 공급 호응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생산한 축산용 미생물 발효제인 액상생균제를 축산농가에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5월 7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억원을 들여 매달 3천ℓ의 액상생균제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장비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액상생균제를 생산 · 공급하고 있다.

특히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등 4종이 복합된 이 액상생균제를 소 · 돼지 · 닭 등 215농가 가축에 먹인 결과 축사 내 악취 제거는 물론 사료 섭취 효율성이 높아지고 장내 유해균 억제에 따른 질병 예방과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루사료 100kg에 생균제를 1ℓ 혼합해 1주일 정도 증식한 후 총 급여사료의 3% 정도를 혼합해 먹이면 일당증체 및 산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분뇨의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산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액상생균제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며 "점차 생산량을 늘려 많은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AI 대비 자가 도축 범위 축소

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전파 속도 및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이나 오리 등을 소규모로 직접 도축할 수 있는 지역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도는 농원이나 가든 등 음식점에서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해 직접 도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을 지난 5월 7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닭은 2천458개 마을에서 1천957개 마을로 20.4%, 오리는 2천311개 마을에서 1천663개 마을로 28.0%, 꿩은 1천708개 마을에서 1천52개 마을로 38.4%로 각각 축소된다.

도는 또 자가 조리 ·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 처리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가축 소유자가 직접 도살 처리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허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고시된 지역에서 도살 처리를 하면서 위생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자가 도축 허용지역내 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축산물도 가능하면 도축장이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자가 조리판매 대상가축의 도살 · 처리 허용지역은 도 홈페이지(www.gsnd.net) '고시 · 공고'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여름 대비 가축 사육관리 현지 기술지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고온에 특히 약한 돼지와 닭 사육농가에 대해 하절기 사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세부 실천사항에 대한 현지 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5월 22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싸여있고,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더위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하절기 가축관리요령을 축산농가에서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당부하고 있다.

농가실천사항으로 닭 사육농가에서는 여름철은 사료섭취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과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함량이 보강된 사료를 사용해 섭취량 감소에 의한 각종 영양소 결핍을 예방해야 한다.

또, 이때 사용하는 배합사료는 한번에 많은 양을 구입할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을 자주 구입토록 하고, 계사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 즉 고압분무장치, 환풍기 등을 설치해 닭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경상북도

상주시, 축산농가에 생균제 이용 기술 보급

상주시는 21세기 축산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미생물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생균제 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해 축산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축산농가 생균제 기술보급 교육은 센터가 직접 배양한 유산균, 고초균, 황국균, 효모균 등 유용미생물을 연간 4만여ℓ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생균제의 이해, 제조방법, 축종별 효과 및 사용법,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사육농가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생균제 활용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질병예방과 면역능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 생균제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생균제 기술보급은 국제 곡물사료 가격 상승과 FTA협상 등 수입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내외적 축산환경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기법이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가축의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해주는 '유용미생물 활용 가축사육'은 사료효율개선 및 질병예방, 면역성 증진, 축사환경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양축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 친환경 생균제 공급 확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을 예방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친환경 생균제를 생산, 관내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존 생산량은 주당 50ℓ로 희망하는 농가에 30%밖에 공급하지 못했으나 올해 국비 1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생균제 발효조를 구입, 생균제를 주당 200ℓ를 생산해 한우 190호, 젖소 20호, 양계 15호 등 희망하는 축산농가 225호에 9천600ℓ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부터 가축 질병 진단실에 생균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연간 1천500ℓ의 생균제를 생산해 전 축종의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무상공급 해주고 있다.

생균제는 미생물인 유산균, 곰팡이, 고초균, 효모균, 방선균을 배양하여 만든 것으로 미강 등 농산부산물과 혼합 발효사료를 만들어 가축에 급여함으로써 가축의 증체율 향상(10%)은 물론 장내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해 소화율을 향상(20%)시키고 소화기 질병을 막아주며,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악취제거(90% 저감) 효과가 높아 축산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권영고 축산담당은 무항생제 축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에 새로 등록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고 있고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품질의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균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화재 발생 축산 농가에 긴급경영회생자금 지원

전라남도가 자체 조성한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화재가 발생한 축산농가에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13일 이후 화재가 발생한 4개 축산농가에 3천438만1천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사료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화재피해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3천만원, 4억~2억원은 2천만원, 2억~1억원은 1천8백만원, 1억~5천만원은 1천5백만원, 5천만~3천만원은 1천3백만원, 3천만원 미만은 피해액의 4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화재 발생농가에서 긴급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원, 화재공제가입 확인서 등을 첨부한 축사화재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축사화재 발생은 많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축사화재 및 가축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이달 중 시·군에서 축사 일제 화재안전점검(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실시, 불량제품은 자율 교체토록 하고 특히 전기 누전 및 전등의 과열 등을 핸드폰에 알려줘 전기이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축사화재예측시스템을 돼지, 닭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50농가에 설치 보급하고 있다.

쾌적한 사육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 현장 시찰 실시

전라남도는 지난 5월 15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HACCP 지정 추진농가,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희망농가 및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명품브랜드 참여농가,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축산교육과 도내 우수농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 HACCP 및 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확대, 필요성, 축사환기 및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이론교육을 실시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친환경 축산만이 살아남는 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적으로 사육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

는 도내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우수농가를 선정, 현장견학을 실시해 친환경축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확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했다.

견학 대상지는 농장 HACCP인증 농가 및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과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수익을 내는 농가 등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친환경축산 모델을 개발해 실천하는 농가에 적정한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못지않게 이 성공모델을 확산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 스스로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원

제주시는 지난 5월 12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FTA 등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 축산물 출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무항생제 인증농가 24개소(돼지 2, 한우 1, 양계 4, 육계 및 오리 17개소)를 선정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출하 장려금 10억원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무항생제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기준은 우선 한우의 경우 총 16개 등급 중 1C등급 이상에만 1두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돼지는 2B 등급 이상 1두당 1만원, 닭 및 오리의 경우 1수당 100원, 계란은 1개당 10원이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 무항생제 생산농가 확대를 유도하고 청정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청정제주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사업장 악취발생 특별대책 수립

제주도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특별대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실제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특별대책으로는 우선 냄새민원 중점관리 축산사업장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으며, 냄새저감 방제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냄새저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상주 직원을 통해 축사내부 물세척 및 청결상태, 축사외부 환경정비, 냄새저감제 사용여부, 분뇨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매일 현장에서 확인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냄새저감 방제단을 총 18개 취약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관리하고 지속적인 냄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중점 지도 · 감독을 통해 냄새관리 우수 농가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축사 청결이 미흡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선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